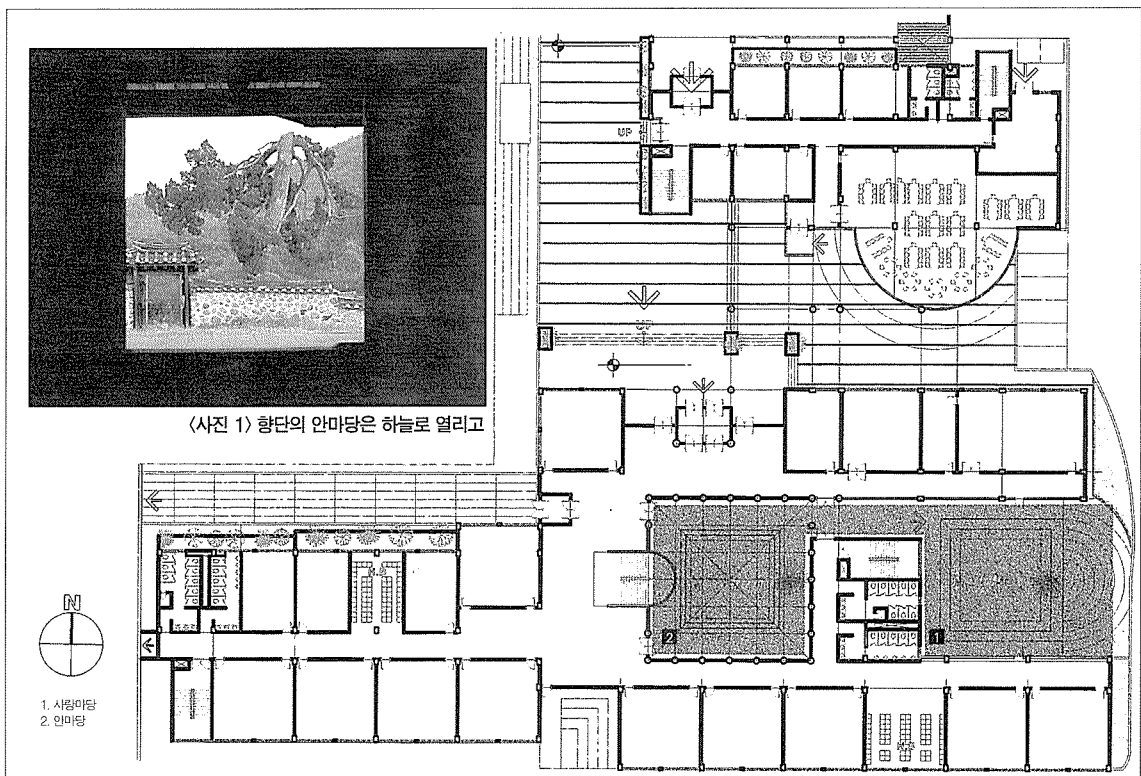


향단 이데아

Hyangdan Idea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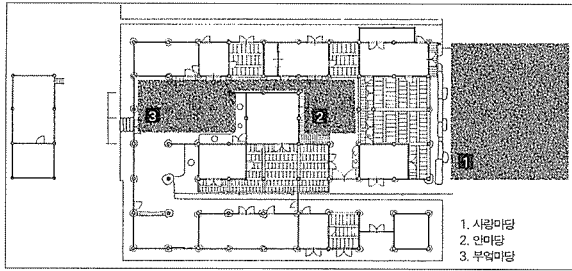


몇해 전인가 전통가옥의 집구경과 마당구경을 할때 양동(良東)마을을 지나면서 향단(香檀)을 처음 보게 되었다. 이 집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가(斑家)로서 대단히 독특한 채의 구성방법과 또한 특별한 마당구성원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모는 38칸으로 16c초에 지어진 용자(用字)형의 평면(平面)을 가진 여강 이씨(麗江李氏)의 종가(宗家)로서 회제(晦齋) 이언적(李彦迪)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재직시 건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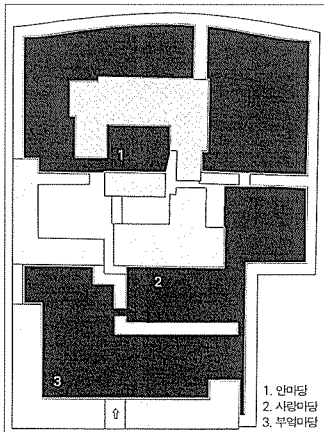
향단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당의 구성이 특이하다. 우선 몸채인 안채에 속한 안마당은 2칸의 규모로서 매우 작다. 그 크기는 가로 5.09m, 세로 4.42m로서 면적은 7평도 채 되지 않는다. 행랑채를 지나 행랑마당으로 올라와 안채의 안마당에 들어서면 우선 그 좁은 공간의 협소함(한국에서 가장 작은

마당)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이 마당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순간이다. 그것은 이 집은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집의 안마당은 우선 하늘이 열려(사진1)있다. 그 다음 사랑대청의 처를 통과하여 사랑마당을 향해 열려있다. 사랑마당까지 확장된 공간의 깊이는 무려 25m가 넘는다. 또한 이집은 좁은 마당을 2개나 갖고 있는데(안마당과) 부엌의 마당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공간은 특이하게도 전통가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통로를 이룬다.

이 집은 빈 공간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비어진 장소는 그냥 그자리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물고가는 경향이 있어서 휘모리 공간성을 갖게 되며 결국 빈 것과 자연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41장의 동이(同異)편에 있는 대상무형(大象無形)(가장 훌륭한



〈도면 2〉 향단 1층 평면도(출처: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91. p.386)



〈도면 3〉 괴산 김기응가옥 마당 구성도(출처: 홍익대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한일전통조경공통연구논집", p.8)

것은 형태가 없다)의 개념으로 보면 한국 전통건축공간은 우수한 구성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아이디어는 건축공간에서 차지하는 바로 마당의-향단 아이디어-미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개념

건축

의 상위개념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한계 개념은 있는 것인가? 설계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이 바로 본질적인 개념설정에서 있을 것이다. 과연 건축(개념)은 어떤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은 개념 선별능력 말고도, 어떤 본질적인 대상의 직접적인 표상(表象)방식이 아니라 단지 '모사(模寫)된 표상(表象)'에 대한 표상을 얻게 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 머리속에는 훨씬 더 많은 가상(假象)(Schein)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질을 헤치기 일쑤이고 정당화하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잠깐 헤겔 사유 방식의 개념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정확한 개념읽기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자. 헤겔의 '개념의 개념'은 '나무와 씨앗'이라는 예를 들면서 그의 '미학강의'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P.Szondi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나무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 헤겔의 개념속에서는 실재적인 대상들의 모든 구체적 규정성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마치 씨앗 속에 나무의 모든 규정들이 미리 형성되어 있듯이" 말이다. 헤겔 개념 정의는 '이념적 통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헤겔적 개념운동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의식에서 자기의식을 거쳐 이성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는 개념운동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 개념운동은 의식의 전체계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된다. 철학이 개념화하는 것이라면 '정신의 개념'이기도 한데, 또한

건축은 헤겔의 사유의 방법으로 보면 정신적 산물들인 예술작품이며 하나의 과정을 갖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서 이집트의 피라밋은 노예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스스로를 깨우쳐가면서 만든 '정신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빈공간(chôra)의 공간정신

동서양을 비롯하여 공간개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의 공간론을 보면 노장의 무용(無用)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을 뜻하는 무의 효용(效用)이라는 내용을 갖는 의미의 공간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수와 비례와 같은)조화로운 법칙에 의한 공간 등이 그 대표적이다.

유럽에서 건축공간에 관한 이론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세기 후반(Schmarsow의 공간개념, 1890)부터였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그 전까지는 건축가들이 대부분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여, Van de Ven은 건축공간론(Space in Architecture)에서 "공간개념이 과거의 모든 역사 시대에 통용되는 예술적 개념으로서 설명되기 시작했던 것이 리글(Alois Riegl, 1858~1905)의 예술의지Kunstwollen이론이 소개된 1901년 이후부터였다."고 하고 있다. 도가(道家)에 나타난 무용(無用)의 공간은 서복관의 중국예술정신에서 노장의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술정신의 바탕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장자정신의 요체가 되는 무용(無用)은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경지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플라톤의 공간개념은 그 코오라(chôra)가 빈공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차있는(place) 장소를 나타낸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여기 제3의 것 즉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하고 전혀 파괴되지 않으며, 일체의 창조물에 장소를 제공하고, -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 Tim. 52b)〉

결국 건축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건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직접적으로 공간을 다룬다. 건축은 재료로서 공간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자리잡게 한다. 기묘하게도 비평은 건축에서 공간적 가치들이 지니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간이 나타난다. 공간은 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빠뜨리고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것을 빠뜨리고 본다 할지라도, 공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유명한 구절의 장본인인 B.Zevi의 말은 현대 건축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이데아의 이데아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Timaios)는 우주론에 관한 책으로 최초의 건축가인 데미우르고스

(Demiourgos)가 등장한다. 그가 만들어 내는 우주는 무질서로부터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근본원리는 다름 아닌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하고자 하는 '선의 이데아(Idee des Guten)'에 대한 인식이다.

'향단의 이데아는 그 미의 이데아가 그 집속에 들어가 선의 이데아가 되고 - 즉 선의 결과가 미이다.' 이렇듯 이데아의 이데아는 최상의 것으로서 이상적인 목표의 최상위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이데아의 표현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아름다운 사물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미의 이데아이다." (Phaid. 100d), "사물들이란 이데아를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Parm. 133), "사물속에 현현된 이데아는 바로 사물의 본질이다." (Rep. 507b)

마당 미학과 작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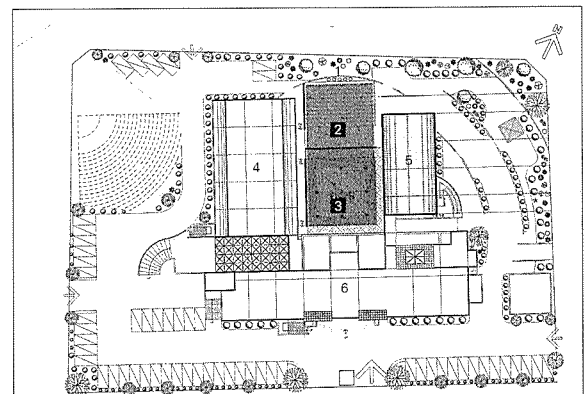
필자가 제시하는 2개의 프로젝트(응모작품)에 나타난 개념중에서 그 프로젝트만이 갖는 고유개념 이외에, 외부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그 중요 개념만으로 국한시켜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K교육연구원(도면4)이다. 교육연구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물론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마당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사랑마당은 안마당과의 단 차이를 주어서 분리하도록 하였다. 한국전통기옥의 분화 과정을 보면 체의 분화로 각각의 고유한 마당(안마당과 사랑마당은 그 개념부터가 다르듯이)의 외부공간은 저절로 생기며, 또한 자연스럽게 위요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이 교육연구원의 마당으로는 언제든지 몸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마당의 바닥재료로 잔디를 깔거나, 마루를 까는 등의 어떤 재료도 포장하지 않는 전통흙 마감으로 고집하였다. 주출입구에서 안대청의 쉼과 같은 입구홀을 통하여 그 열린공간을 확장하여 안마당이 보이게 하였다. 안마당은 이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중심의 마당이 되도록 하였다. 그뒤에 붙어있는 사랑마당은 역사의 마당으로 화성 전통의 봉돈을 상징화하여 설치하였다. 이렇게 전통적인 문법을 응용하면서, 두개의 마당을 달리하며 합쳐놓은 <안사랑마당>으로 계획한 작품이었다. 비어있는 공간의 마당 미학은 비어있다는 그 비어있음'이 바로 풍요한 정신성을 갖게함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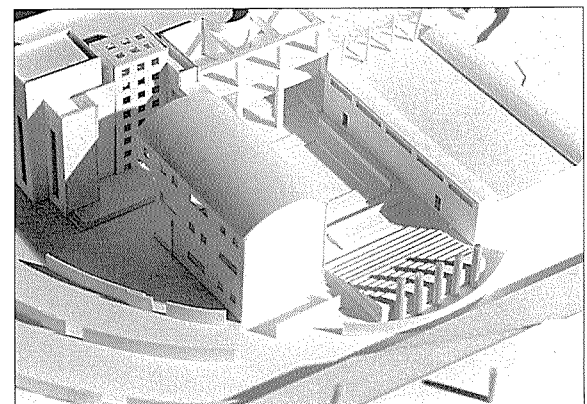
그 다음 프로젝트는 D고등학교(도면 1)이다. 36학급 규모로서 남녀공학이다. 여기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작은 몸체의 커를 두고, 분리하면서 일부는 사이를 잇는 사잇공간을 두기로 하였다.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지만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외부공간에 나타나는 마당의 개념은 단순히 비어놓는다고 그것이 마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즈음 처리되는

방법이 채와 채사이에 넓은 공간을 두고 이것을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을 잘 모르는 일이다. 즉 마당과 채와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않고 외부공간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안마당은 안채라는 몸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면위에서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거꾸로 칠해 본다면 전통마당의 구성이 한눈에 들어 온다.(도면2, 3) 이 학교는 향단의 몸체를 살펴본 후에 계획 한 것이다. 향단의 안마당과 부엌마당의 2개소의 마당처럼 적용시켜 보았다. 향단의 안채와 부엌사이의 그 사잇공간의 편안한 크기와 그 양중맞음, 그리고 그 사이를 넘나드는 감칠맛나는 공간의 분위기는 향단을 다녀온 사람은 모두 느낄 것이다.

나는 이 두 프로젝트를 경험한 후 과연 <향단 이데아>는 세계정신과 맞닿아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그 답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싶다. '정신의 최고 단계인 이데아의 세계정신은 여기저기 도처에 있다. 향단은 바로 그 세계적 정신이 나타난 그 현상 자체이다. 그것은 한국만이 갖는 것이 라는 고유한 주관성을 뛰어넘어 자기의식의 발전단계(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랜시간의 인내를 통하여 각 계기를 거치면서 정신의 최고 단계인 이데아를 향한 개념운동의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나타난 세계정신인 객관정신으로서의 보편적 정신이다.'



(도면 4) K교육연구원 배치도
1. 방도조형물 4. 대강당
2. 사랑마당 5. 연구동
3. 안마당 6. 교육연구동



(사진 2) K교육연구원 사랑마당과 안마당